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신년인터뷰]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	1
江原日報	02면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4
江原日報	04면	이주호 부총리 "교육발전특구 적극 지원"	4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이주호,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열린 강원대 찾아 "강원도 큰 ...	5
江原日報	09면	"올해 리빙랩 저널리즘·산불보도·지역 의료문제 심층 취재 ...	6
江原日報	26면	"수소 기술 고도화에 총력 ... 글로벌 신에너지 경제 선점"	7
강원도민일보	20면	누정문화 대표 문화유산 '삼척 죽서루' 국보 됐다	7
江原日報	20면	"삼척 역사문화 중심지 보존·전승"	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최재민 도의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9
강원신문 가평시대 글로벌 리더 gnews.org	온라인	홍천군, 청사 주차문제 해소... 제2주차장 준공식 열려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1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1
江原日報	01면	교육부 '강원대·춘천교대·도립대' 통합 권유	12
江原日報	02면	교육부 '강원대·춘천교대·도립대' 통합 권유	12
江原日報	01면	축구장 5천여개 규모 도내 군사호보구역 해제	13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유적전시관에 복원	14
강원도민일보	16면	양구 '청년 주거타운' 조성 지역정착 돕는다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미래산업 도모했으나 성과 미진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일·여가 균형 최하위라니	16
江原日報	25면	[사설] 동해·삼척 비전 선포식, '수소산업의 메카' 기대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역사가 되고 있는 2023년, 새 미래 또 열어가자	18

[신년인터뷰]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역량 집중"

"2차 개정안 미반영 특례들 반드시 반영...실무부터 적극 참여"
"예산 낭비 초래 사업·우후죽순 출자출연기관 꼼꼼히 검증"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은 2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안들을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새해를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3차 개정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낭비 초래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해 경종을 울리고, 도의 출자출연기관 검증을 통해 일부를 통폐합한 점을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권 의장과 일문일답.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는 등 전반기가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의정 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굳이 매긴다면 90점을 주고 싶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10점을 뺀 이유는 의회 관련 특례안을 비롯해 53개 특례안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해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출범 전과 후 분위기가 달라졌나.

출범 전까지는 어려운 고비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해 난관을 헤쳐 나갔다면 출범 이후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내 처리하라'

(춘천=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정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해왔는데 성과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마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정책지원관 총 24명을 채용했지만, 의정활동 지원에 적합한 정책지원관으로서의 경험과 분야별 배경지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의 역량을 일깨우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지만, 전문성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안건을 심사·심의해야 할 도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지원관의 의정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실무진 위주의 워킹그룹에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계획 등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조정은 여러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도민 요구와 여론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이 개정안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실무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과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결과물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강원도 역시 긴축에 돌입했다. 도의회에서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도 집행부에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알펜시아 매각,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커'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공직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부적정한 행위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 특히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커'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정리다. 특위 출범 당시 출자출연기관 수는 총 26개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당부했고 2개 기관을 통폐합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기관 정비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유인촌 장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경기장 점검

(강릉=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방문해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왼쪽) 등과 함께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현지 시찰을 통해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챙겼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버스 운송계약, 봅슬레이 선수단 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이뤄냈다. 올림픽 홍보와 붐업 대책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관중 방한 대책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겠다.

-- 남은 임기 동안 도의회 역점 운영 방향은.

올해 초 137개의 특례안이 강원특별법에 담겨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84개 안만 통과되었고 그 중 의회와 관련된 도의원 정수 특례, 선거구 획정 특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 등 4개의 특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3차 개정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듬어진 3차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상정해 현 21대 국회의 종료 전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3 12 29 ()

02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가 28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최문순 화천군수, 백창석 춘천부시장, 황학수 도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4면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 12 29 ()

04

이주호 부총리 “교육발전특구 적극 지원”

강원대서 설명회 열고 참여 독려
춘천·화천 등 5개 시군 가신청
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 점검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강원지역을 찾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글로벌대학이 대학 중심이었다면 교육발전특구는 전체 교육생태계를 포괄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교육특구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반선섭 강릉원주대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최문순 화천군수, 백창석 춘천부시장, 황학수 도지방시대위원장,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박길선 교육위원장, 이영욱 교육부위원장, 김기하·김희철·이승진 교육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교육발전전략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자율적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도 다양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도내에서는 현재 춘천, 화천, 원주, 강릉, 태백 등 5개 지자체가 가신청을 낸 상태다. 이 중 춘천과 화천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모집하는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원주, 강릉, 태백은 내년 5월부터 6월 말 사이 2차 공모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횡성, 고성 등도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강원자치도가 교육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국가 교육을 선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와 도교육청, 강원대와 한림대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 자리를 통해 강원도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고 공교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이후 춘천 금병초교와 신동면 돌봄교육공동체 현장을 찾아 강원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휘기자 yuinyo@kwnews.co.kr

2023 12 28 ()

강원도민일보

이주호,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열린 강원대 찾아 "강원도 큰 가능성 갖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 일시 | 2023.12.28.(목) 14:30~16:00
! 장소 | 강원대학교 로열호텔강원관 (강원, AMP)
! 주최 | 교육부, 교육부, 강원도



▲ 교육부는 28일 강원대에서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강원·경기·인천)'를 개최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영

교육부가 28일 강원대에서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강원·경기·인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최문순 화천군수, 백창석 춘천시 부시장, 황학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재 시범지역 공모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함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있어 강원지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자는 큰 슬로건으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을 본 것이 글로벌대학 선정 과정이다. 한 곳도 안 된 곳이 많은데, 강원도는 두 군데나 됐다. 고등교육에서 강원도가 선도하고 있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교육발전특구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글로벌대학이 두 군데나 선정된 만큼 힘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특구를 통해 강원도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부는 28일 강원대에서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강원·경기·인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현영 강원대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최문순 화천군수, 황학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서영

우동기 위원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강원도내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혁신적인 입시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서울대와 경쟁률이 맞먹는데 강원도내 대학 모집인원은 391명이다. 이 중 강원도 학생은 85명으로 21%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53%고 부산은 82%가 지역인재다. 강원지역 대학들이 교육 특구를 통해 80%를 지역인재로 뽑는다면, 강원도 교육의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인재가 정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지사는 "신경호 교육감과 힘을 합쳐 잘 해보겠다. 열심히 논의해 따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구현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경쟁력 마련의 발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특구는 교육만이 아니라 인구정책이 걸린 중요한 부분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는 인구 분산의 최적지"라 했고,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교육과 초중 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결되는 것이다. 대학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정민업·최우은

江原日報

2023 12 29 ()

09

김종기
강원대 교수 위원장김준래
사단법인 스마일강릉 이사장박찬홍
국민의힘 도의회 원내대표류인출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정별님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최용
전 인문즈 대표이사최홍주
상지대 전기전자융합공학과 학과장조희숙
강원대병원 부원장하광운
강원민주재상인 이사

“올해 리빙랩 저널리즘·산불보도·지역 의료문제 심층 취재 눈길”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2023년 제7차 회의

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7차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11명의 독자위원 중 9명이 참여해 2023년 한해 동안 보도된 강원일보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기 위원장=“평범한 독자로서 읽어 왔던 강원일보는 독자위원의 자격으로 읽으니 전혀 다른 신문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강원일보와 함께했던 올해를 돌아보고자 한다. 강원일보가 강원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분투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수록 독자위원으로서의 비판적 시선은 무더어졌을지라도 강원일보가 나아가려고 하는 춘추필법(春秋筆法)의 백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 시대의 요구와 환경에 발맞추어 꾸준히 변화와 변신을 거듭해야겠지만, 그 저변에 깔린 시대정신은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가리라 믿는다.”

△김준래 위원=“올 4월 강릉 산불 이후 신속한 현장 보도에 이어 피해 상황과 원인 분석, 펜션 주인 등 주민들의 사연, 산림복구 및 관광지도 변화 등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은 더 많은 미담과 성공 기적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기존 거주자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지는 대응형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지자체의 미래 신성장사업 추진 상황 및 대학의 글로벌대학 선정 이후 어떻게 지역 발전과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다뤄줄 필요가 있겠다. 내년 초에도 지역에서 강원동계청소년을 릴레이로 열리는 만큼 스마일 시민운동 등 올림픽 개최도시가 가진 특성과 방향성을 지면을 통해 적극 전해 주길 기대한다.”

△박찬홍 위원=“1971년 102만명의 출생이 수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25만명이 무너진 24만9,000명이 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622만명으로 현재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

김종기 “강원지역의 다양한 목소리 충실히 전달하려는 분투·노력 엿볼 수 있어”

김준래 “내년 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 지면을 통해 적극 전해주길 기대”

박찬홍 “외국인 유치 통한 인구 정책 관심 ... 정착 위한 공감대 형성에 역할 당부”

류인출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세로 사회 문제에 파고든 것이 무엇보다 신선”

정별님 “지방지의 역할 많아 ... 지역 분권·자치 이뤄내는 대표신문이 되길 기원”

최 용 “인포그래픽 형태 기사·온라인 유통 고민 더해주 독자층 확대 이뤄지길”

최홍주 “더 세심하게 강원 구석구석 살피고 더 발전하는 선도적인 언론이 되길”

조희숙 “지역 보건의료 개선 위해 지방정부 책무성 자극 ... 기능·역할 성실히 수행”

하광운 “약자 대변하는 따뜻함과 권력에 대한 추상의 잣대를 잃지 않으리라 믿어”

으로 통계청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문화적·정서적 이질감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차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길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강원일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류인출 위원=“올 한 해 강원일보 보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중 기획으로 보도된 ‘리빙랩 저널리즘-일상에서 답을 찾는 골목살림살이’이었다.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하던 기존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세로 사회 문제에 파고든 것이 무엇보다 신선했다. 특히 리아카 프로젝트는 실제 성과까지 이뤄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기대하게 됐다. 고성산불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언론과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준 것만으로도 이재민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리라 본다.”

△정별님 위원=“올 한 해 알차고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워주시어서 독자로서 너무 감사드린다. 늘 강원일보

제호를 볼 때마다 78주년이라는 긴 역사와 모바일 구독자 230만명이라는 알뜰한 눈에 들어온다. 강원일보의 저력인 것 같다. 올 한 해도 좋은 기사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신하림 기자의 산불 보도와 삼 속으로 성금 들어간 ‘리아카 프로젝트’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현장에서 발품을 들여 꼼꼼히 오랜 시간 취재한 게 너무 좋았다. 인물면이나 오피니언면 사진이 늘 흑백인 게 조금 아쉬웠다. 지방 신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강원일보가 지역 분권과 자치를 이뤄내는 대표신문이 되길 기원한다.”

△최용 위원=“대형 산불, 대풍 등과 같이 여전한 반복되는 재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이슈가 많았던 2023년이었다. 강원일보는 이렇듯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실시간 소식 전달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를 만들었다. 한편, 강원일보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 공급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독자층을 넓히기 위한 변화에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인포그래픽 형태의 기사, 다양한 온라인 유통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서 주 독자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홍주 위원=“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지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외부 회의이고, 춘천에서 개최되는 회의라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한 3월29일 첫 회의. 마침 저와 관련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독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잠시, 2차 회의까지 참석하고 바쁜 일정을 핑계로 많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비록 독자위원회를 떠나지만 더 세심하게 강원도 구석구석을 살피는 강원일보가 되기를, 발전하는 그리고 선도적인 언론이 되기를 기원한다.”

△조희숙 위원=“코로나19 이후 높아진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2023년에는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개선 및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강원일보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면을 통하여 강원도의 의료문제 현안을 다루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일회성 기사, 단편적인 현상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현상에 심층 기획 시리즈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보건 의료 현안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지역의 보건 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자극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지적들을 기사로 다수 다루었기에 지방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광운 위원=“독자위원으로 참여하신 의료, 법조, 지방자치, 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신문을 읽는 법, 세상을 읽는 법을 접한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신문 제작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갖게 되었다. 강원일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한국 사회의 보편적 화두로 해석해 제시하는 일과 함께 도민들 일상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따뜻함과 기록권과 권력에 대한 추상의 잣대를 잃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원일보를 향해 내놓은 애정 어린 요구들이 지역 언론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지면을 만들어 나가는 신문제작자에게 불편함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정리=오석기기자

2023 12 29 ()

江原日報

26

“수소 기술 고도화에 총력 ... 글로벌 신에너지 경제 선점”

강원테크노파크 사업계획 발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총괄 수행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산업진흥 기반 구축 및 기술검증 기반 구축, 액화수소 공급 기반 구축 등 3가지 세부사업을 제시하며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에 필요한 경제성과 안전성, 효율성 등 ‘3박자’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장·운송 산업 집적·육성=첫 과제는 산업진흥 기반 구축이다. 수소 에너지의 저장 및 운송 사업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산업을 한층 더 키워 나간다는 뜻이다. 해당 사업은 통해 북평 제2일반 산업단지과 삼척시 강원대 그린에너지관이 주요 무대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36억원, 지방비 373억원 등 총 509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의 산업 진흥과 사업인중, 산학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진흥센터는 입주기업 대상의 기술역량 강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안정성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지난 2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열려 이철규 국회의원, 김영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호연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심영근 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허정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 내빈들이 비전 선포를 하고 있다. 삼척=권태명기자

시험센터는 실증을 통해 성능평가가 완료된 기술, 제품의 국제 통용 공인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한다. 강원대 삼척캠퍼스를 활용한 산·학캠퍼스도 조성되는데 산업현장을 연계한 교육을 비롯해 산·학협력형 공동연구, 벤처·창업 등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재·부품 검증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기술검증 기반도 다진다. 수

산업진흥·기술검증·액화수소 기반 구축 3대 사업 박차 ‘경제·안전·효율성’ 3박자 완성 ...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소 저장·운송 산업 분야의 소재 및 부품을 검증해 경쟁력을 확보,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통해 북평 제2일반 산업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원태(기체, 액체, 액상) 저장·운송 분야 기

술 및 제품 기술검증,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모사 환경을 제공하는 실증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수소 기업이 개발한 수소 저장, 운송, 충전 분야 기술 및 시제품의 기술검증 플랫폼을 제공

하는 것이다. 내구성과 내압, 저장, 압축, 화수, 공급시험, 수소충전효율시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 사업 역시 2028년까지 실시되며 국비 90억원, 지방비 5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된다.

■액화수소 공급 안전성 확보=액화수소 공급 기반 조성사업은 삼척에서 진행된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제시한

세 가지 세부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삼척 호산 LNG 인수기지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는데 국비 196억원, 민자 2.315억원 등 2,511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특수목적합작법인(SPC)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소 액화의 기술 국산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 같은 세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강원도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에너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친환경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허브, 액화수소 공급 거점도시 구축으로 일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4,100억원 규모다. 80여개의 입주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 그린수소소지, 수소전환지, 그린암모니아자구 등을 갖춘 동해는 수소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수소·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다양한 민간자원을 확보한 삼척은 미래 에너지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성명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12 29 ()

20

누정문화 대표 문화유산 ‘삼척 죽서루’ 국보 됐다

보물 지정 이후 60년 만에 승격
특자도 출범 이후 첫 탄생 주목
“죽서루 가치 만끽 적극 지원”

한국 대표 누정 건축물이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며관동팔경의 백미(白眉)로 평가받는 삼척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28일 삼척 죽서루 경내에서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웅천 문화재청장과 박상수 삼척시장,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정정순 시장의, 심영근·조성은 도의원 등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참



관동팔경 제1경이자 한국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평가받는 삼척 죽서루가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국보로 승격돼 28일 현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석했다. 삼척 죽서루는 지난 1963년 보물 제213호로 지정된 이후 60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으며 도내 문화재 가운데 13번째 국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탄생한 첫 번째 국보이자 관동팔경 가운데 유일한 국보 문화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대 활동했던 김극기(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 창건됐다. 이후 조선 태종 3년(1403년) 부사 김효손이 중창한 이후 수차례 중수·중축·단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옛 모습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는 유일한 누정 건축물이다.

최웅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죽서루는 현존하는 누정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명실상부한 우리 누정문화의 대표유산”이라며 “이번 국보 승격으로 죽서루는 기존 주목받던 경관적 가치에 더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추가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전국민들이 국보 죽서루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의 으뜸가는 문화유산인 죽서루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보가 됐다”며 “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평가되는 죽서루가 강원 역사·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江原日報

2023 12 29 ()

20

“삼척 역사문화 중심지 보존·전승”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행사 600여명 참석
지정서·기관 표창 수여

【삼척】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삼척의 대표 문화재인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 기념행사가 28일 죽서루 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등 시의원,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조성운 도의원, 신순금 삼척교육장, 유진삼 삼척우체국장, 최선도 삼척문화원장, 김승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이사장, 시민 등



◇관동팔경의 제1경이자 삼척의 대표 문화재인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 기념행사가 28일 죽서루 경내에서 열렸다.

600여명이 참석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박상수 시장에게 국보 지정서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28일 국보로 최종 지정 고시된 삼척 죽서루로 인해 삼척시

는 첫 번째, 강원자치도는 13번째 국보를 보유하게 됐다.

박상수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삼척 죽서루의 국보 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탄생한 도내 첫 번째 국보”라

며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계기로 죽서루를 삼척의 역사 문화 중심지로 활용,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963년 죽서루가 보물로 지정되고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드디어 국보로 승격했다”며 “수백년의 시간 동안 죽서루가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죽서루를 아끼고 사랑해 준 삼척시민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만진·전명록기자

2023 12 28 ()

江原日報

[포토뉴스] 최재민 도의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최재민(국민의힘.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전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28일 도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홍천군, 청사 주차문제 해소... 제2주차장 준공식 열려

김수미 기자

2021.10.27일~2023.12.7일까지 총 사업비 45억 6천 7백만원 투입
연면적 1,956.93㎡, 주차대수 139대(전기차 8대) 주차면수 증가
업무 수행과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 기대



홍천군 '제2주차장' 전경

홍천군은 지난 28일,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1층 입구에서 제2주차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홍성기 도의원, 지역주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청사 주차면수가 252대로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번 제2주차장의 완공으로 홍천군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완공된 제2주차장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총 사업비 45억 6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홍천읍 희망리 94-33번지에 건설되었으며, 연면적 1,956.93㎡, 지상 2층 3단 규모로 139대(전기차 8대, 장애인주차 3대)를 수용할 수 있어 가용 주차면수가 크게 증가했다.

28일 준공식 이후부터는 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상시로 개방될 예정이며, 제2주차장 완공으로 직원들 뿐 만 아니라 홍천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준공식에서 "제2주차장 완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gwnews@hanmail.net

2023 12 28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인제군 현1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현1리 대동회에 참석.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9일 오후 2시 평창송어축제장 내 송어맨손잡기 체험장에서 열리는 제15회 평창송어축제 개막식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31일 밤 11시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4 속초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29 ()



15
최종수(평창)도의회원은 29일 오후 2시 오대천 송어맨손잡기 체험장에서 열리는 평창송어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9 ()



17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9일 오후 6시 30분 속초 아남프라자에서 열리는 속초시자율방범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29 ()

01

교육부 ‘강원대·춘천교대·도립대’ 통합 권유

이주호 장관 간담회서 발언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글로벌대학30사업에 선정된 강원대에 춘천교대, 강원도립대와 통합하는 형태의 글로벌대학사업 추가 신청을 권유했다.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강원대에서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대학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4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김현영 강원대 총장에게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통합하는 ‘1도 1국립대’ 정책으로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만큼, 진정한 ‘1도 1국립대’가 되려면 도내 다른 국립대학인 춘천교대 및 강원도립대와의 통합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휘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2 29 ()

02

교육부 ‘강원대·춘천교대·도립대’ 통합 권유 -1면에서 계속

강원대-춘천교대-강원도립대가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차기 글로벌대학30사업으로 선정되면 강원지역 대학은 추가로 1,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을 막 시작한 만큼 도내 다른 대학들과의 통합을 함께 진행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글로벌대학 시작 단계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우선”이라며 “다른 대학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최양희 한림대 총장에게 한림대의 글로벌대학

비전인 ‘AI 대학’ 및 ‘K-고등교육’ 확산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와 글로벌 진출 파트너십 구축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江原日報

2023 12 29 ()

01

축구장 5천여개 규모 도내 군사보호구역 해제

접경지 철원·화천 비롯 강릉
역대 최대 '3,618만7,484㎡'
한기호 국방위원장 큰 역할

축구장(7,140㎡) 5,068개 면적에 달하는 강원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 구역이 해제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9일자로 해제 및 완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강원은 접경지역인 철원과 화천을 비롯해 강릉까지 총 3,618만7,484㎡다. 여의도 면적의 12

배 수준으로 이번에 해제된 전국 면적의 66%를 차지한다.

철원의 경우 갈말읍 문혜리 일원과 김화읍 청양리, 서면 자등리, 근남면 잠곡리 일원 3,090만2,370㎡가 포함됐다.

화천은 화천읍 아리 일원과 간동면 도송리 일원,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원 274만5,875㎡가 해제 대상이다. 평소 주민들의 출입 및 재산권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들이다.

강릉에서는 운산동 일원과 구정면 덕현리 일원, 강동면 상시동리 일원 253만9,239㎡의 규제가 풀린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추진해 왔

다. 특히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한 한기호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당초 국방부는 내년 초 발표를 계획했지만 한 의원 요구에 따라 시기를 앞당겼다. 또 내년 1분기에도 대규모 추가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기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보호구역 해제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2023 12 29 ()

강원도민일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유적전시관에 복원

10

시·문화재청 실내 보존 결정
승탑원 보호각 건립안 부적합
내년 9월 복원모습 공개 전망

속보=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본지 12월 27일자 4면 등)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실내로 결정됐다.

원주시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협력,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원 위치를 유적전시관 실내로 최종 확정했다.

문화재청과 원주시 등은 복원·보존처리를 마친 지광국사탑의 복원 장소와 관련, 승탑이 있던 원래 위치인 승탑원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법과 유적전시관 내부에 두는 방법 2가지를 놓고 최적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탑을 지광국사탑비가 있는 원자리인 승탑원에 보존하기 위해선 보호각 건립이 필수지만, 이를 위한 대규모 공사로 경관이 훼손되고 연약한 지반 탓에 부분 침하가 발생, 탑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재청과 시는 원 위치 복원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전시관은 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야외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24년 초 탑 복원을 위한 설계가 완료되면 상충기단 등 부재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릴 예정이다. 탑의 온전한 모습은 이르면 2024년 9월 공개될 전망이다. 원강수 시장은 “최적의 보존 위치 결정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전시관 실내 복원을 결정했다”며 “보존과학 기술의 발달로

보호각 없이도 원 위치 복원이 가능하다면 문화재청과 보존 위치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국사 해린(984~1070)의 사리와 유골이 봉안된 지광국사탑은 역대 승탑 중 가장 화려하고 개성 있는 문화재로 꼽힌다. 지난 1911년 무단으로 반출된 후 서울, 일본 오사카, 경복궁 후원 등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는 오랜 유랑생활 끝에 2019년 6월 원주 이전이 결정됐다. 탑의 33개 부재 중 31개가 지난 8월 112년 만에 우선 귀향하면서, 복원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영진·권혜민

2023 12 29 ()

강원도민일보

양구 ‘청년 주거타운’ 조성 지역정착 돕는다

16

해안면 공공임대주택 14호 건설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 지원
총 61억여원 투입 2026년 준공

양구 해안면에 2026년 말까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혁신주거타운’이 조성된다.

군은 28일 군청에서 ‘청년혁신주거타운’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서흥원 군수와 최계자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

해 수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흥천·춘천지사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청년혁신주거타운 조성사업은 양구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차 사업이다. 총사업비 61억6000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원, 군

비 1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해안면 후리 일원에 건축면적 1093.82㎡, 연면적 1112.82㎡ 규모로 가축형 4호와 공유형 10호 등 총 14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군은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3월부터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했다.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5월쯤 공사를 시작해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해안면 이현리 일원에 4.0ha 규모로 총 9개 구역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스마트팜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작물 재배용 첨단온실과 스마트팜 장비, ICT 융·복합시설 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흥원 군수는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첨단농업 기술을 활용한 농업재배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청년혁신주거타운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면서 농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2 29 ()

/ 19

미래산업 도모했으나 성과 미진

-2023년 특별자치도 출범의해,여러 숙제남겨

강원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은 202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 6월 11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지향점을 내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릉에도청 2청사 격인 글로벌본부가 설치되고, 지역별 첨단산업 특화를 위해 필수인 국가전략산업 유치 확보를 향해 다방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반도체산업은 경기도 용인 중심으로 한 대단위 조성으로 결론났으나, 강릉 물바이오산업에 이어 어제 원주·춘천·홍천 등지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정밀의료산업 고도화 일환으로 보건의료데이터산업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됨으로써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역과 대학 동반 발전을 꾀하는 비수도권 글로벌대학에 통합 강원대 및 한림대가 선정됐으며 새해 1월 국제이벤트인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반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민 기대감에 충족할 정도로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내외 어려워진 경제 환경과 국고 대폭 감소로 인한 건축재정 탓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어도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이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지 않은 점이 큰 걸림돌이 됐습

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효과가 반감된 이유엔 특례 적용 시점이 1년 후인 2024년 6월에야 가능하므로 아직 착수하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 지향점으로 제시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추상적인 비전을 구체화하는 세부 수립 과정과 단계별 진행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키우며 여러 숙제를 남긴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가계 부채가 늘고 점포가 문을 닫는 등 지역경기가 악화돼 도민 삶의 현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가 유출되면서 마을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과 삶의 수준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 붕괴를 우려한 사이에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앉은 채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비대화로 비수도권이 쇠퇴하고있긴하나 지방자치제 30년을 넘기면서 시도 간, 시군 간, 마을 간 수준 및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을 넘어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는 6월 11일 출범 이후 어떤 조치를 이어오며 주춧돌을 놓았는지 시간순으로 세심하게 설명해 도민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9 ()

/ 19

강원 일·여가 균형 최하위라니

-지자체 제도 및 관심도 하위...이래서야청장년층 남아있겠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강원이 17개 시도 중 꼴찌 불명예를 썼습니다. 2021년에는 15위였는데 이번 2022년도 조사에서는 맨 밑바닥 17위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간은 길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러 제도 이용에서 뒤쳐진 곳으로 강원도 악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하위에서 벗어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이 있어서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내 사업장 및 시민 대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데 강원도는 지자체 관심도에서조차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미래가 암울합니다.

노동시간과 여가생활 균형 점수는 2022년도 전국 평균 58.7점으로 나타납니다. 2021년보다 4점이 상승한 것으로 대다수 시도에서 월등히 향상된 수치를 보였지만, 강원도는 반대입니다. 강원도의 순위는 15위에서 17위로 추락했습니다. 16위 전북은 54.8점이었는데 강원도는 50.9점으로 뚝 떨어지는 점수였습니다. 2021년 17위였던 경북은 2022년 55.6점으로 15위로 올라서며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울산은 2021년 16위에서 이번에 무려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021년 14위였던

충북은 2022년 4위로 수직 상승했는데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선 덕분이었습니다.

순위가 급상승한 지역의 경우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담당 조직을 확충했으며 교육 및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돋보였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평가했습니다. 강원도와 같은 관광산업이 주류인 제주의 경우는 근로자 휴가 기간이 늘어난 사업장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로 6회째 '부산 워라벨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주제 포럼을 마련하는 등 워라벨 주간 행사를 다채롭게 펼쳤습니다.

강원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습니다. 더군다나 총근로시간이 길고 휴가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 비율이 높고 지자체마저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강원지역에 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여가 및 개인 활동을 중시하는 청년층으로부터 지속해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젊은 층이 몰리는 지자체일수록 일과 삶 병행 정책이 눈에 띄게 향상됐음을 강원도와 시군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2 29 ()

/ 25

동해·삼척 비전 선포식, '수소산업의 메카'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는 지난 2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 완성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강원 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축하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따라서 수소생산기지 등과 함께 동해·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원자치도가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동해안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수소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이자 탄소중립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소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곳 설치 등을 포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강원

자치도가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기반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성해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 지자체와 기업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도출해 혁신적인 지역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강원자치도 중심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동해·삼척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 수소 저장·운송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수소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수소산업진흥센터·안전성시험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한 수소 형태별 대상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실증테스트베드'가 건립되는 등 수소 저장·운송 관련 집적 공간도 마련된다. 삼척 호산항 LNG 생산기지에는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해 미래 수소경제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액화수소의 산업화 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자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취약했던 우리나라 수소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재 개발, 수소 생산과 충전·저장 분야 육성, 인허가 규제 완화 및 특례 허용 등이 이어지면 '수소산업의 메카 강원'이 결코 꿈이 아니다.

江原日報

2023 12 29 ()

/ 25

역사가 되고 있는 2023년, 새 미래 또 열어가자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어김없이 매년 돌아오는 예정된 일정이지만 2023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들먹이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는 그야말로 ‘체급’이 다른 격동의 1년이었다. 적잖은 기대가 있었고 그만큼 안타까움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문다. 2023년 6월11일 0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2006년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그리고 40여년 숙원사업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착공됐다.

이 사업은 1982년 10월 첫 계획 입안 이후 천 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국립공원 훼손이라는 극한

의 찬반 갈등을 빚어 왔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법정 공방, 행정심판 등 수차례 무산 위기를 넘기고 행정절차를 전부 마치면서 본격적인 착공 수순에 돌입한 것은 올해의 대단한 성과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제에 의해 약탈당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올 11월 ‘환지분처’의 꿈을 이루며 고향 평창의 품에 안겼다.

또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9~10월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속초, 인제, 양양에서 열려 14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다. 모두 강원인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올 5월20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며 양양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했고, 4

월11일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274세대 55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힘들게 터득한 교훈과 뼈아픈 경험은 허투루 낭비되지 않았다. 고비 고비마다 강원인들의 저력이 어김없이 빛을 발했다. 그렇다고 이제 새 세상이 오는 것처럼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일이다.

힘든 상황을 겪으며 제대로 해내지 못한 현안들이 해를 넘기면서 지역경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뒷목을 틀

어주고 있다. 총소득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자치권과 특례를 바탕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뚜렷한 ‘구체적 사업’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조선왕조실록·의궤 고향 평창으로 돌아와

서로 격려하며 지역발전 동력 찾아 나설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시 비장한 각오로 대한민국의 주류에 설 수 있는 미래와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로부터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꿈꾸는 행복공동체, 경쟁력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서 올해 우리가 헤쳐 온 시련과 고통은 분명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했던 1년. 그 안에서 때론 가슴 졸이며, 때로는 가슴 벅차게 소리치고 포옹했던 강원인들과 더불어 계묘(癸卯)년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낸다. 그리고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